

## [ 목포권 ]

## 수산물 지리적표시제 2년 넘게 '지지부진'

## 청정 전남 특산품 제값 못받아

## 타 지역산 '전남산 둔갑' 피해 속출

수산물 지리적표시제가 추진 2년이 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어 전남 서남권 수산물 특산품들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

수산물 지리적표시제는 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로 정부는 지난 2005년 7월부터 도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어류의 경우 이동성이 잦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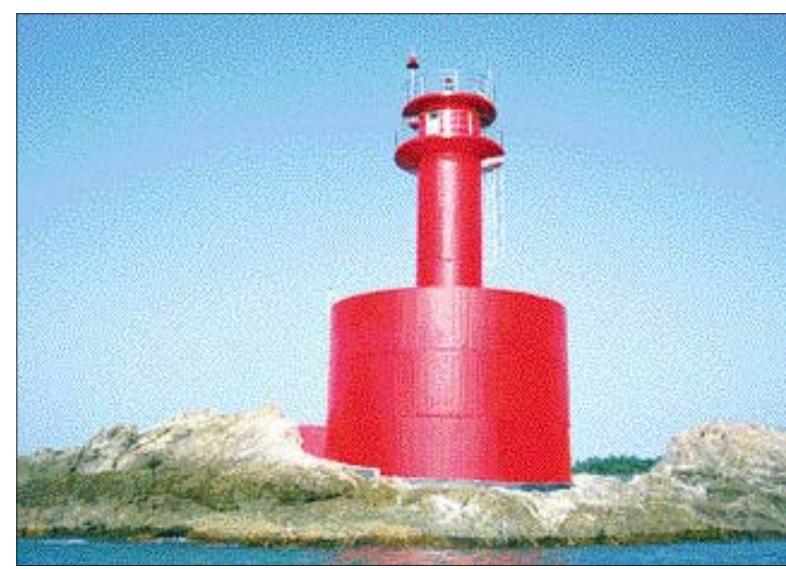
특정 지역 특산품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수산물 지리적표시 제 시행이 지지부진하면서 타 지역 수산물들이 전남산으로 둔갑 판매돼 어민과 소비자 모두 피해를 입고 있다.

지역 어민들과 가공업자들은 '청정지역과 양질의 것'에 생산되는 전남지역의 우수한 수산물을 수입 수산물과 차별화해 어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지리적표시제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폐류와 해조류 등은 내년부터 우선 시행하고 지역적 구분이 어려운 어류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산물의 경우 지난해 2월부터 진도 홍주와 해남 겨울배추, 장흥 표고버섯 등 13개 품목이 지리적표시 제로 등록 지정돼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 신안 하태도에 '넓은여 등표' 불 밝혀

신안군 신의만 하태도 서쪽 해상에 '넓은여 등표'가 설치됐다. <사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4억7천만 원을 들여 설치한 이 등표는 높이 18.4m의 원형 콘크리트 구조물로 14.8km(8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불빛 식별이 가능하다.

이 해역은 조업하는 어선들의 통행이 빈번해 매년 2~3건의 선박 충돌 사고가 발생해 왔다.

목포 해수청은 앞으로도 보다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조성을 위해 등표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 “무안 세발낙지 드시러 오세요”

## 제철 맞아 항포구마다 관광객 몰려 '불야성'

다. 특히 계르마늘 성분이 1.63mg/kg 함유된 무안갯벌에서 자란 낙지는 생명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낙지 어황이 좋아지면서 휴일이면 남도의 맛과 정취를 만끽하고자 찾아와 무안 세발낙지의 진미

를 체험하려는 관광객들의 차량이 무안읍 낙지거리와 바닷가 항포구마다 줄을 잇고 있다.

무안군은 지난 2002년부터 낙지 축제를 열고 있으며 공동브랜드로 개발해 상표등록도 마쳤다.

지난해에는 800여 여가가 600t의 어획고를 기록해 135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무안군은 전용 포장재와 택배용 아이스 팩을 제작, 보급하고 봄·가을철 성기에는 직거래 유통과 전국 택배 주문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있다.

또 낙지에 판매 스티커를 부착해 실명거래를 정착시키는 등 명품화를 추진하고 있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세발낙지'로 유명한 무안 갯벌 낙지가 재철을 맞았다.

최근 밤기온이 쌀쌀하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낙지 주요 어장인 청계만과 탄도만, 합해만 등 무안 앞바다에는 낙지잡이 어선으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밤에 낙지잡이가 이뤄지는 것은 낙지가 애행성이어서 밤에 먹이를 찾아 활동하기 때문이다.

무안에서는 부드럽고 쫄깃하며 갯벌 색깔을 닮아 짙빛 윤기가 흐른

여가가 600t의 어획고를 기록해 135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무안군은 전용 포장재와 택배용 아이스 팩을 제작, 보급하고 봄·가을철 성기에는 직거래 유통과 전국 택배 주문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있다.

또 낙지에 판매 스티커를 부착해 실명거래를 정착시키는 등 명품화를 추진하고 있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주택/디자인(전체)

▶아파트 (단위 대월)

▶오피스텔 (단위 대월)

▶근린 주택 (단위 대월)

▶기타 주